

## 연어 분석-국가별, 이상치 2020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오후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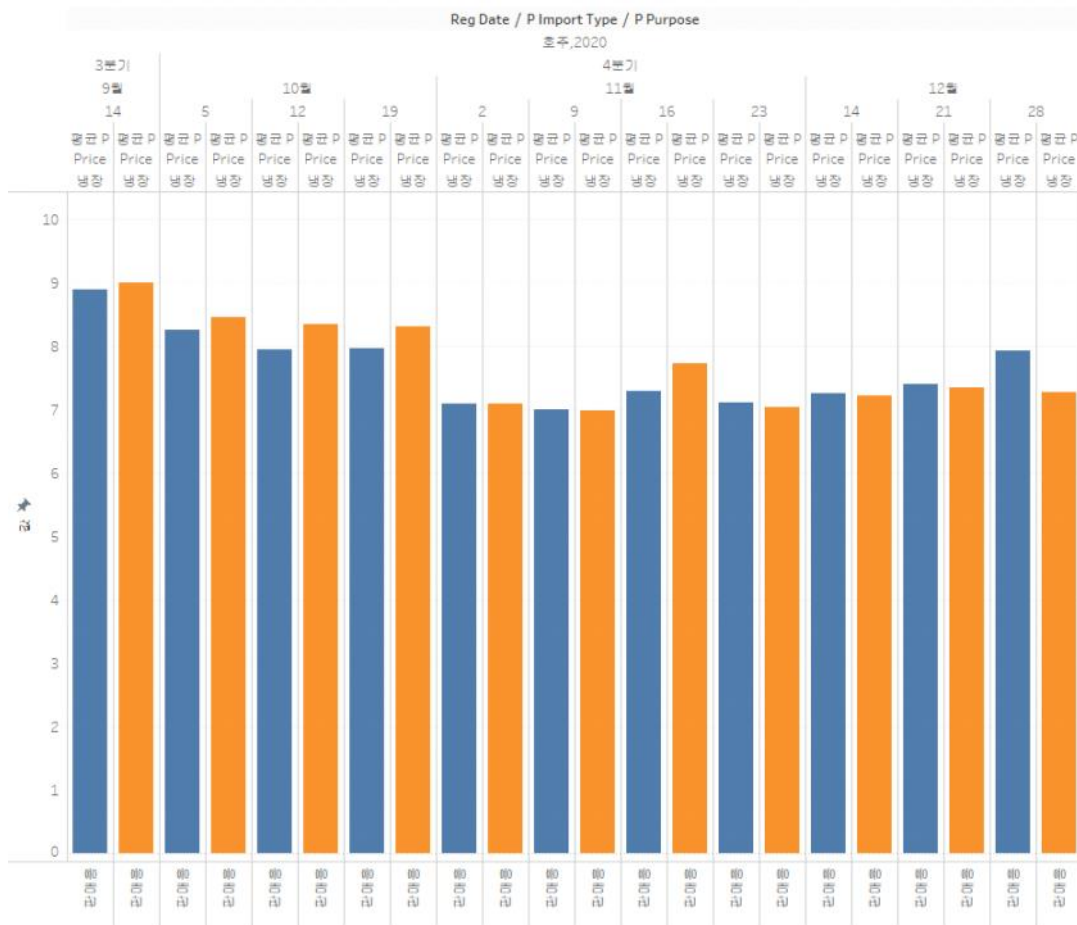
연어를분석해보자. 국가별.

평균과 10%이상 차이나면 체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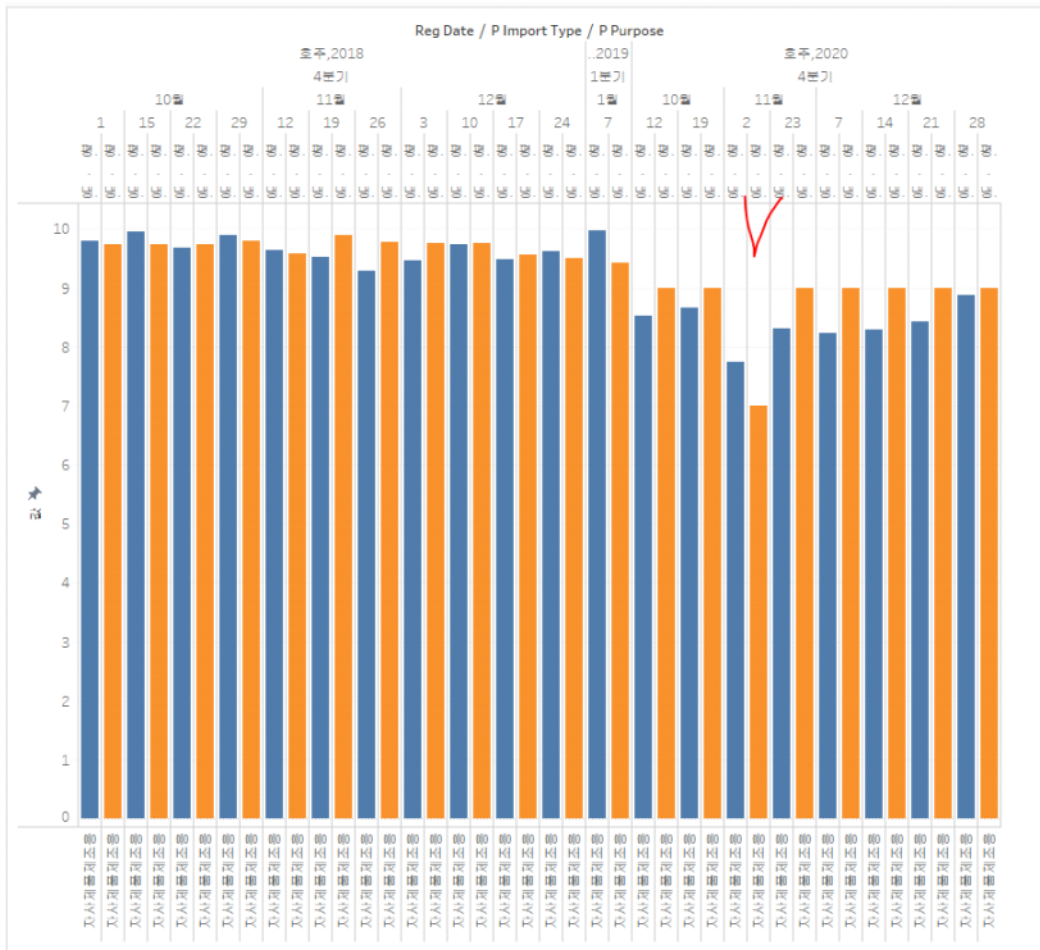
호주-전체 1.9%를 차지. 냉장을 수입한다.

18년 10월 첫째주부터 수입시작. 19년 1월 첫째주까지 수입.

위는 냉장 전체 카테고리 기준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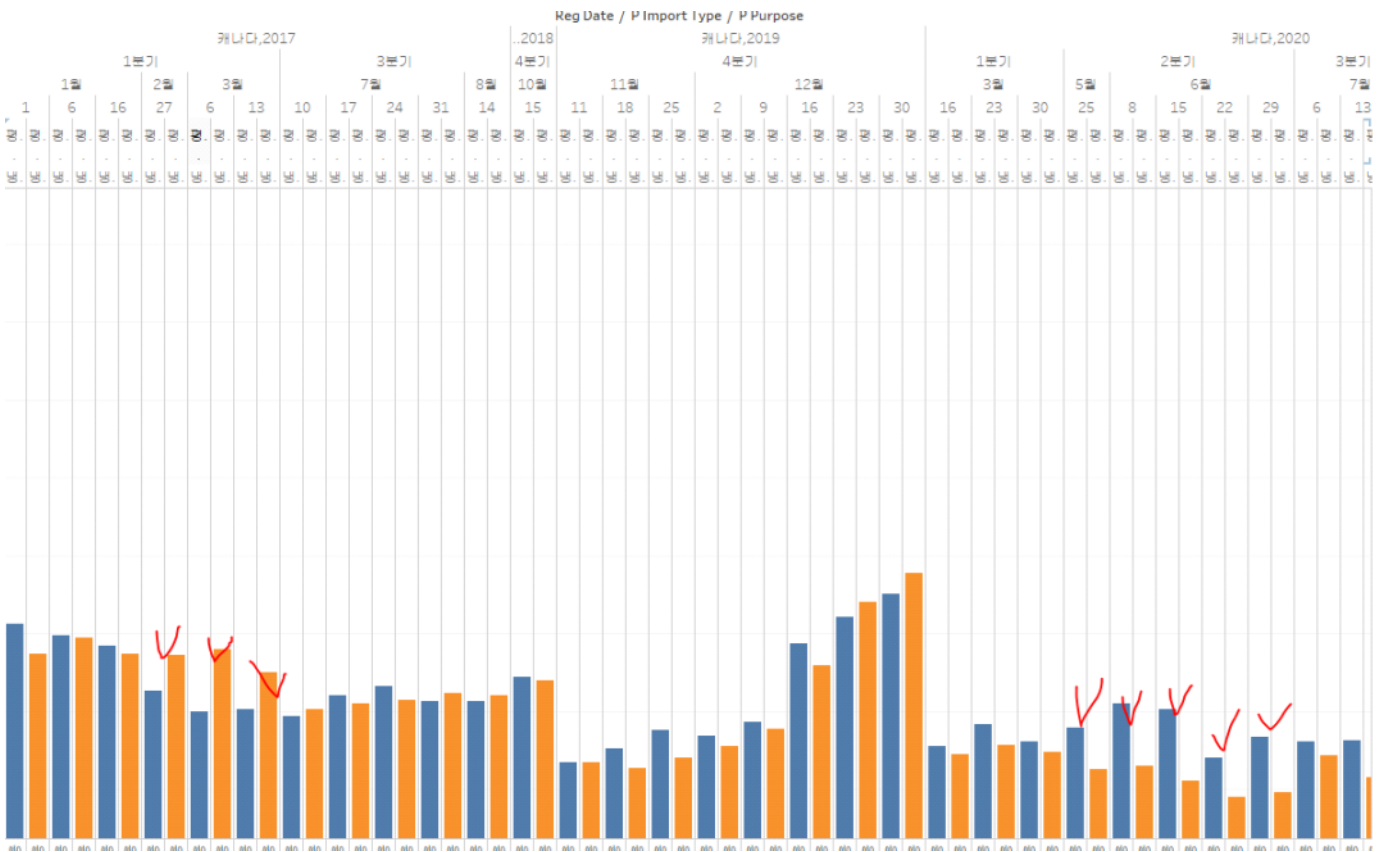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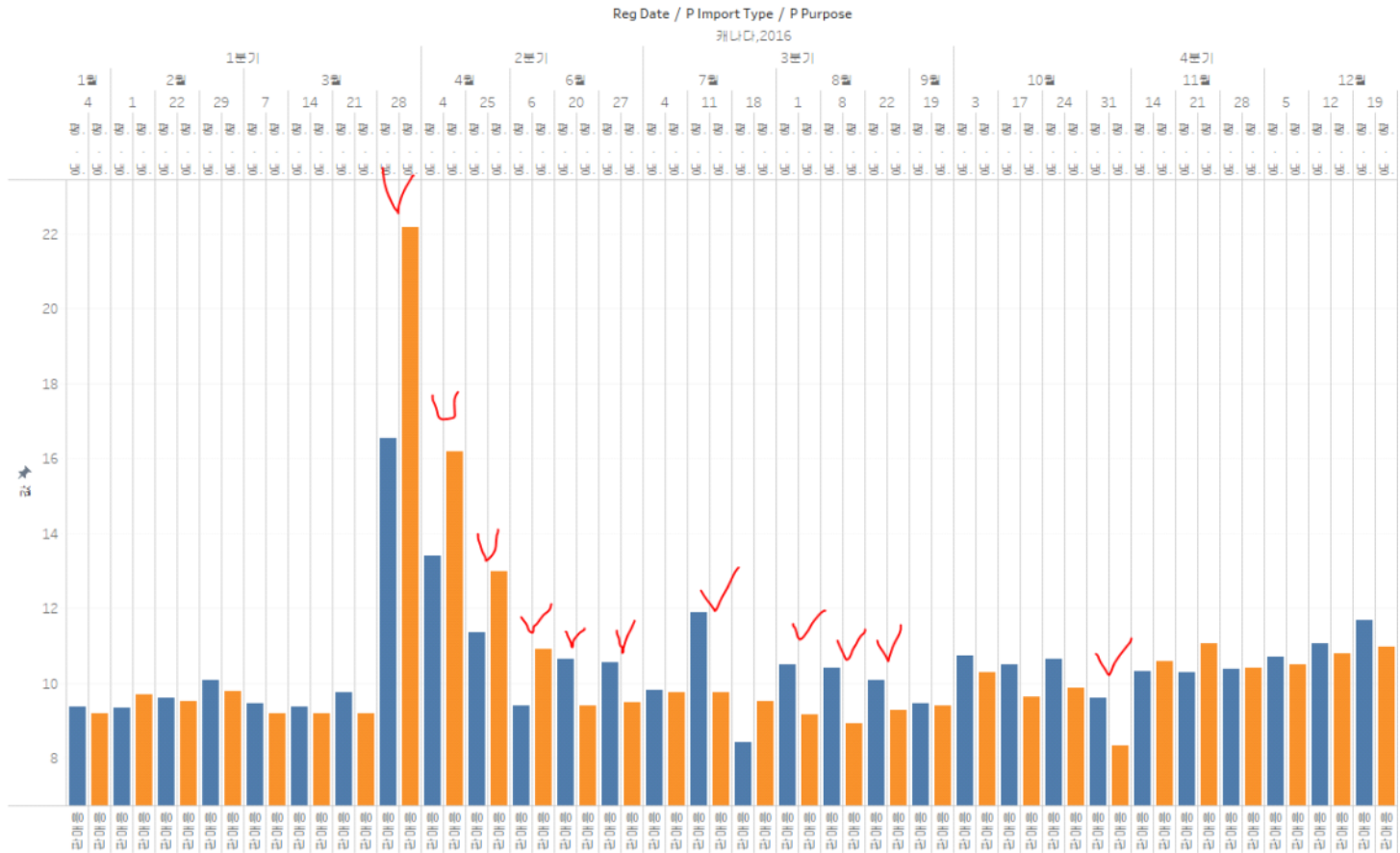
아래는 자사제품용 카테고리 기준이다. 가장 많은 케이스인 노르웨이가 들어간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1월 2일에 약간의 이상치가 보이지만 크게 신경 쓸만큼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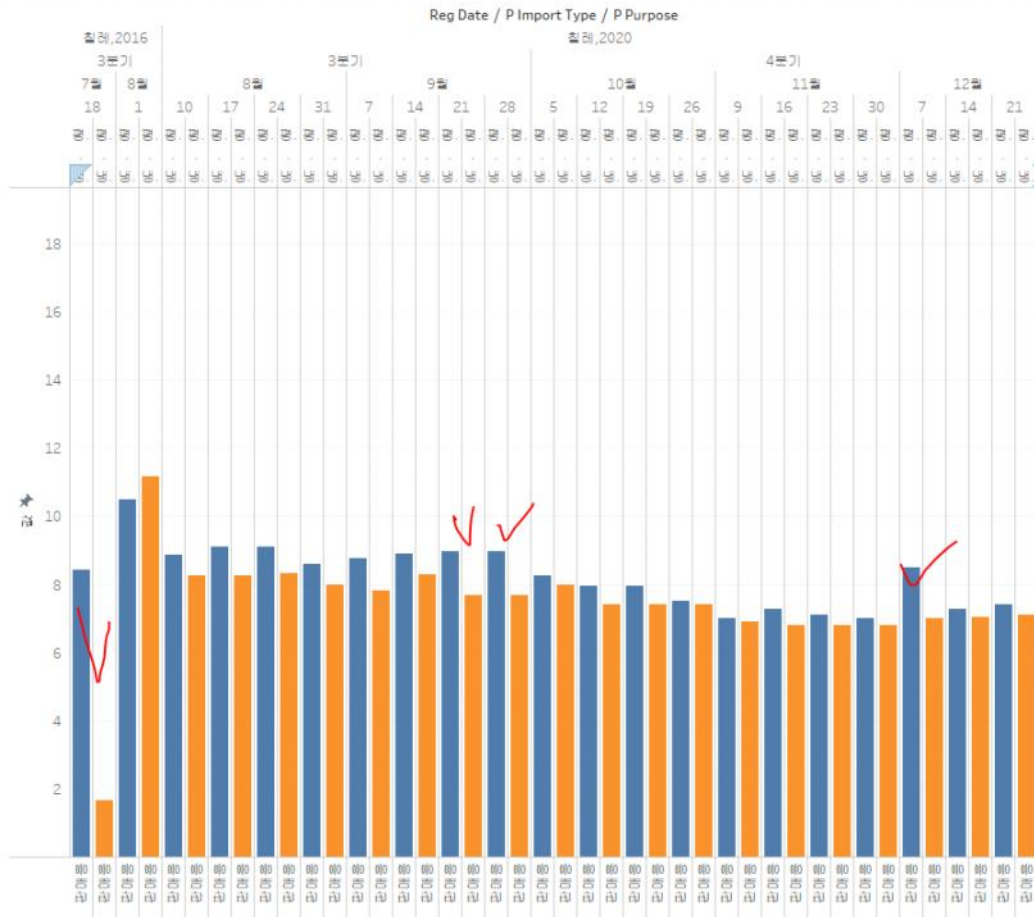
캐나다-전체 4.13%를 차지. 냉장을 수입한다.

16년 1월부터 수입시작. 꾸준히 거래하다가 17년 3월 셋째주~7월 첫째 주 까지 거래 기록이 없다. 또한 17년 8월 둘째주부터, 19년 11월 첫째주까지, 18년 10월 셋째주를 제외하면 거래기록이 없다. 마지막 기록인 19년 11월 둘째주부터 매주 재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름에만 잠깐 거래를 했다.

생각보다 이상치가 조금 나오는 나라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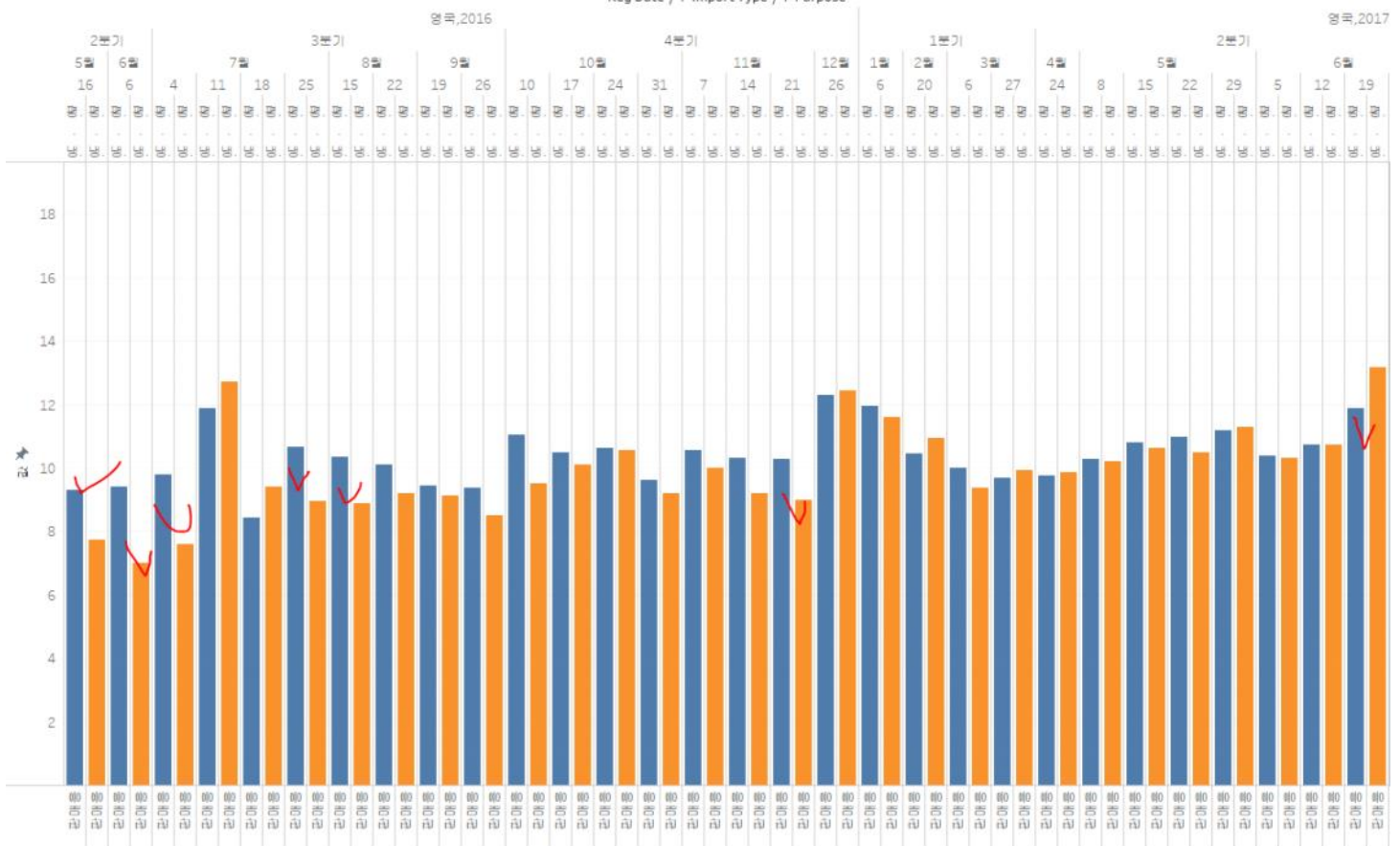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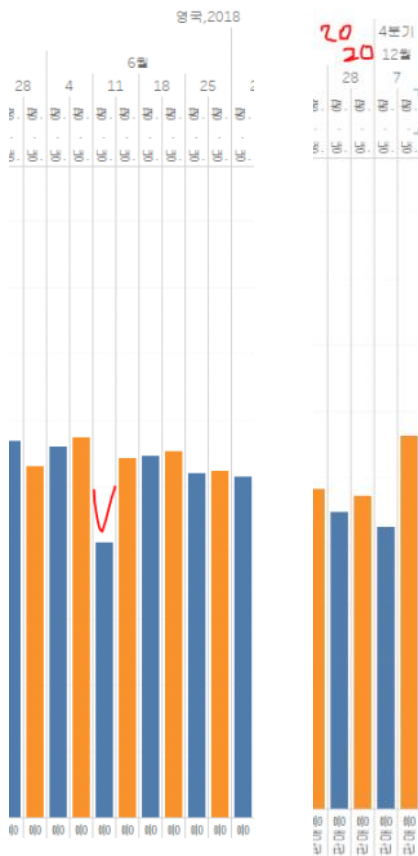
칠레-전체 1.2%를 차지.  
16년 7월엔 무슨 일이 있어서 연어를 떨어를 쳤을까?  
내생각엔 전산오류가 아닐까 싶다. 앞에 1이 떨어진거야...  
8월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냉동은 워낙 별난놈이라 나중에 정리한다.



중국-2번 왔다.  
냉동-넘어간다.

영국-전체의 7.8%를 차지. 2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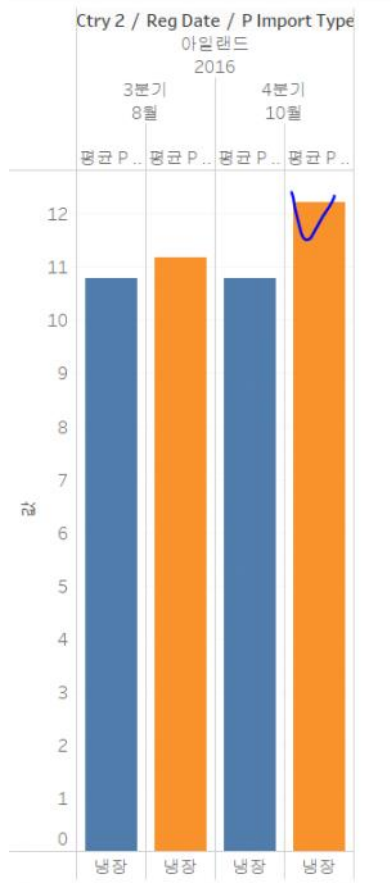




2016년 초기에는,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지만, 4분기부터는 서서히 평균가를 따라잡으며, 평균가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 17년에는 유일하게 냉동을 한번 수입했는데, 이때의 냉동은 평균보다 매우 저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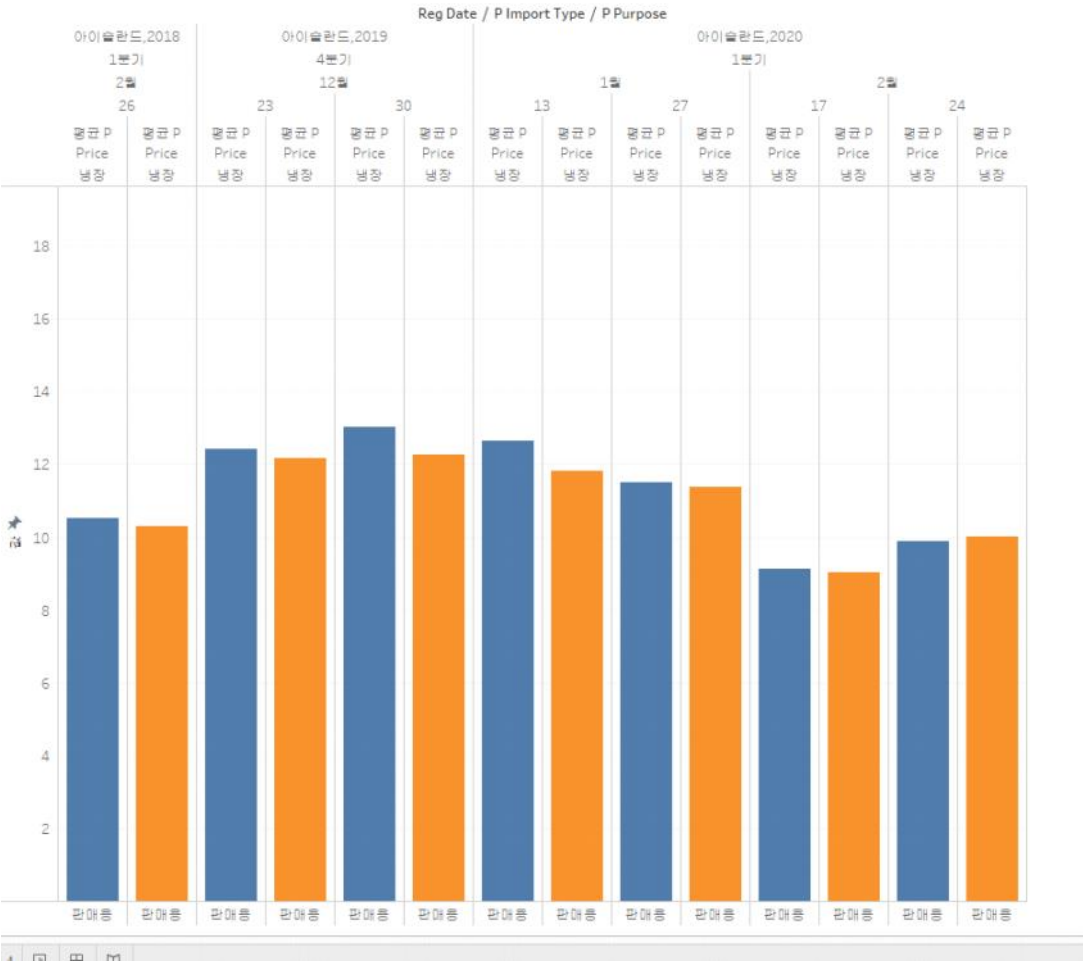
18년도부터는 계속해서 냉장만 수입하며, 전체적으로 평균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으나, 전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다.

아일랜드 전체 거래의 0.13%를 차지. 단 두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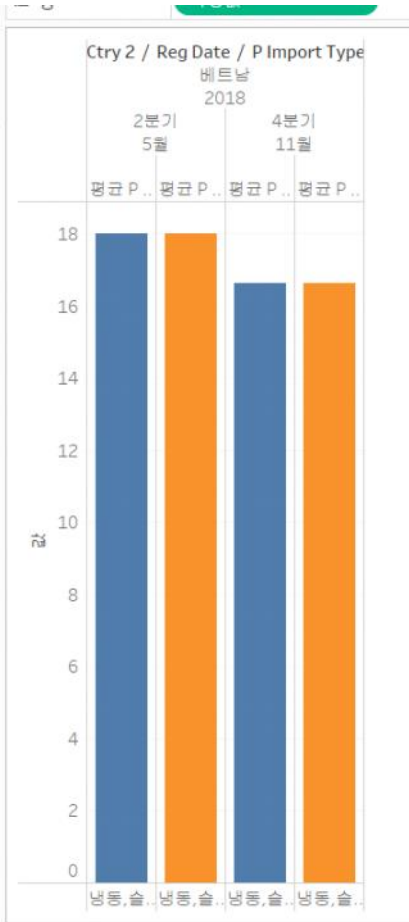
16년도에만 단 두건의 냉장거래가 있었으며, 8월은 평균과 비슷했으나, 10월은 평균과 1.5달러의 차이를 보이긴 했다. 이상을 보인 거래 횟수는 단 1회뿐이다.

아이슬란드 전체 거래의 0.36%를 차지.



냉장의 수입 국가이며, 2018년 2월에는 1회 거래했으나, 19년도 12월 마지막주에 두건의 거래가 있었다. 따라서 다른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19년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유심히 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했는데, 1월 2월에서 거래가 끊겼다. 전체적으로 평균가격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베트남-전체 거래의 0.1%를 차지한다



냉동,슬라이스(s),포장횡감 이 거래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단 두건을 거래했다.  
 냉동,슬라이스(s),포장횡감은 가격이 조금 나가는 품목이지만  
 거래가 없다...

-----  
 미국 전체 거래의 0.3%를 차지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6번 거래했다. 냉동을 다루는 네 국가중 하나다. 자체에서도 값이 왔다갔다 하는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냉동 자체가 예외적인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냉동은 나중에 별개로 정리할 것이다.

-----  
 러시아 영국,노르웨이와 가까운 나라 치고 0.7%밖에 거래량이 차지하지 않는다. 아마 노르웨이는 양식을 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자연산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러시아는 거래량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상당히 예외적 성격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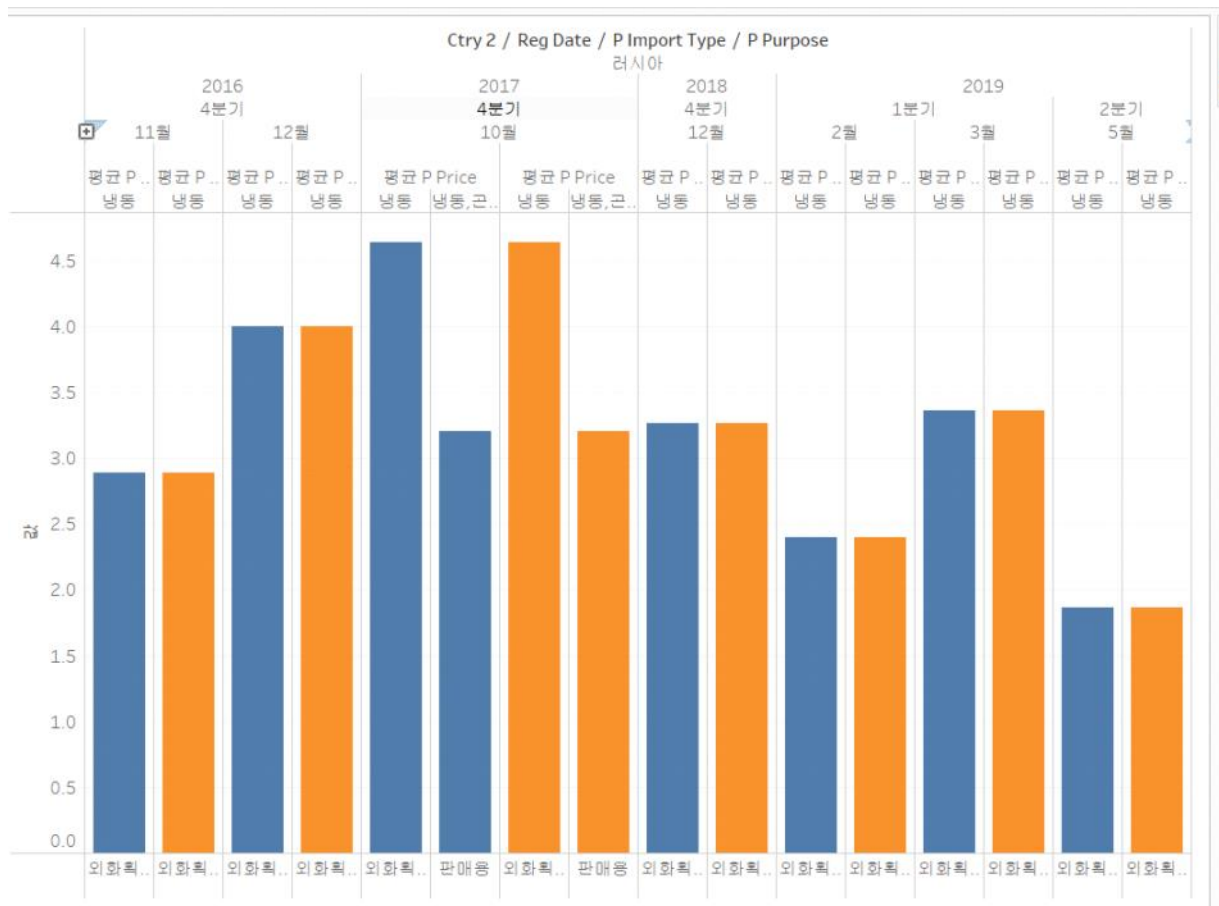
먼저 유일하게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이다.

또한 이 외화 획득용 원료로서 수입하는 냉동제품은, 생각보다 가격의 편차가 크기도 하다. 바로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또한 이러한 냉동은 냉장등의 제품과 비교했을때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또한 단 한번 냉동,곤이를 판매용으로 수입한 해당 품목의 유일한 수입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다른 부위와 비교해보면 티무니없이 싼 가격이다.

그 외의 냉장제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완전 예외적 성격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특이사항만 기록해두고, 자세한 분석은 추후에 하도록 한다.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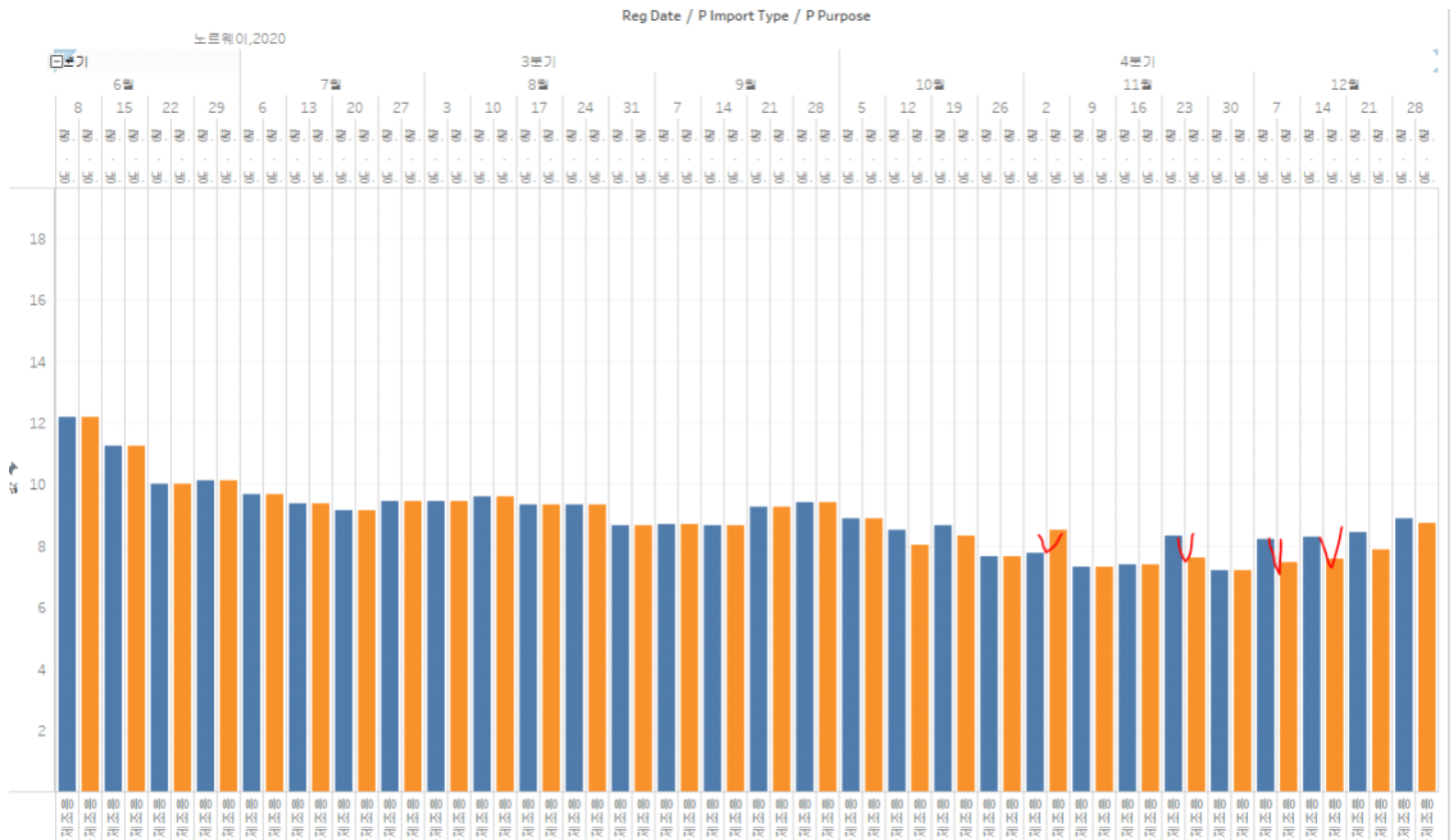
1.자사제품

1-1냉장

호주가 수출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독점.

7~13달러에서 왔다갔다 하는중. 스무스하게 정현파형태로 증감을 하므로 경향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





#### 1-2냉장필렛

독점중이다. 평균 14~15달러선을 유지중이며, 16년도 8월 이전까지는 13~달러도 종종 보인다. 이후 마지막 기준일까지 14~15달러를 유지중이나,

16년 10월 둘째주에 21.69달러(이전주 13.91, 다음주 14.19)

17년 5,6,7월에 42.38, 46.80, 39.12라는 압도적인 이상 수치를 보인다.

(이전주-16.2

17년 5월 첫째주-24.61

17년 5월 둘째주-34.62

17년 5월 셋째주-62.46

17년 5월 넷째주-49.78

17년 5월 다섯째주-40.52

17년 6월 첫째주-51.39

17년 6월 둘째주-43.79

17년 6월 셋째주-48.55

17년 6월 넷째주-43.48

17년 7월 첫째주-5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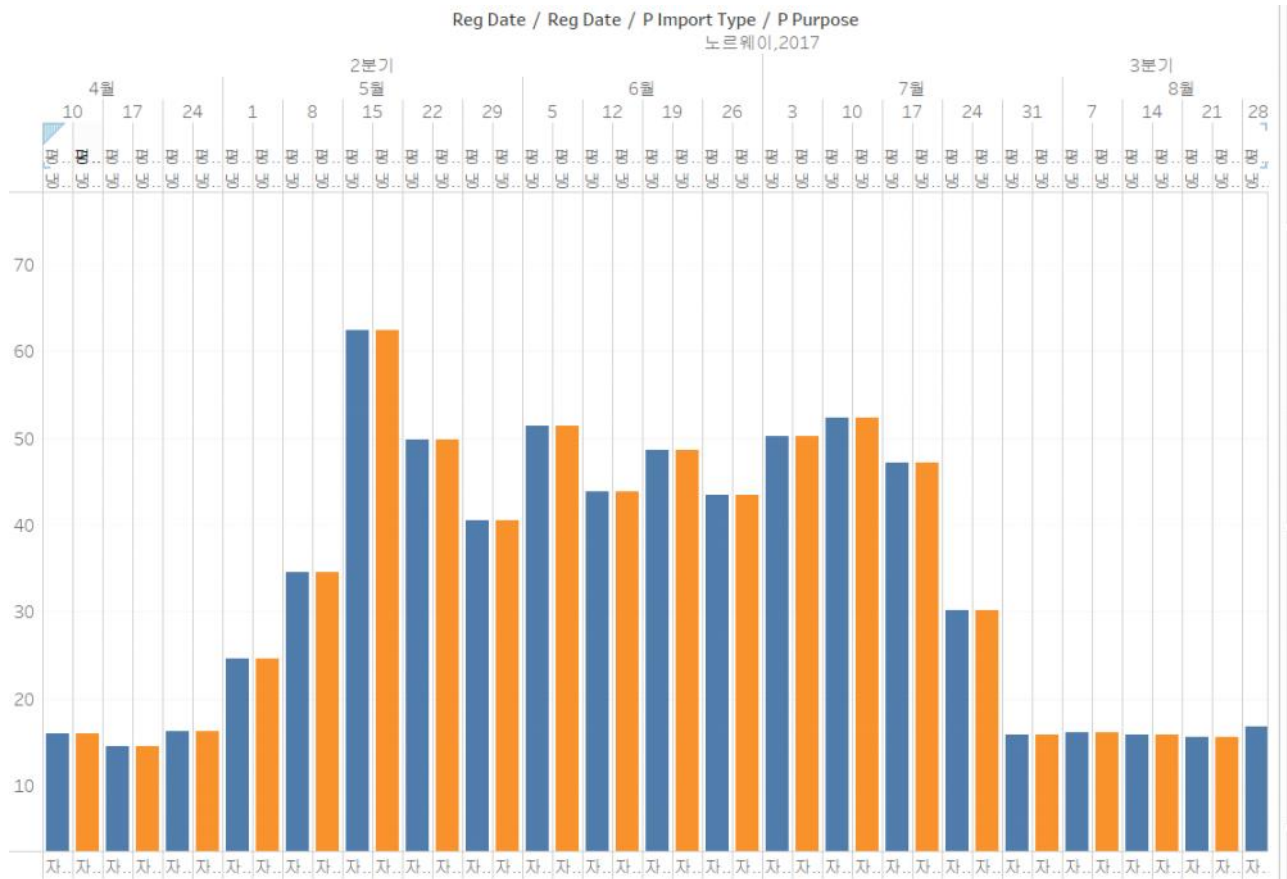
17년 7월 둘째주-52.26

17년 7월 셋째주-47.19

17년 7월 넷째주-3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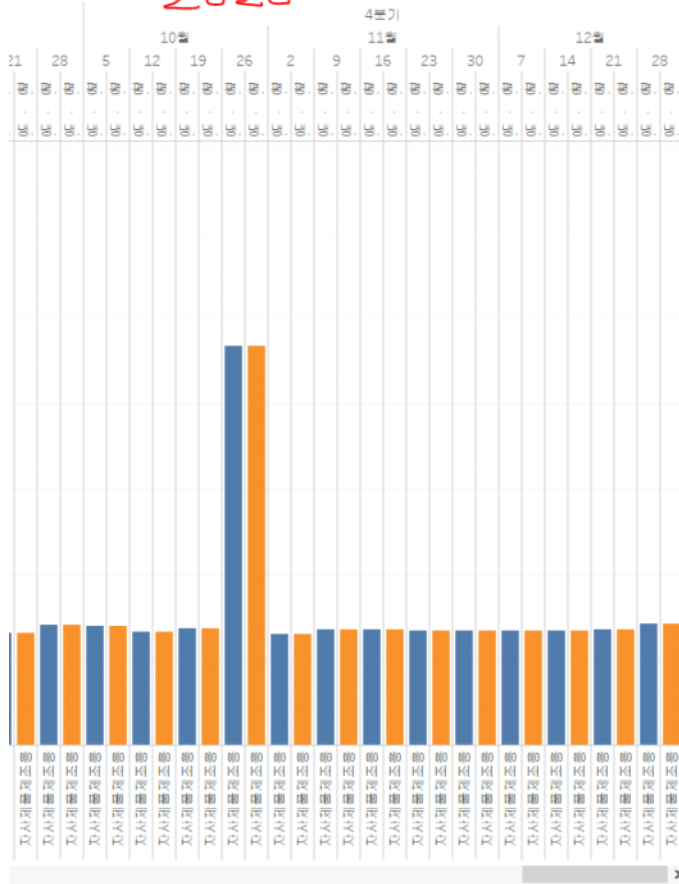
다음주(17년7월 다섯째주-15.81. 바로 원상 복구)

19년 12월 셋째주에 21.65달러(이전주 14.95, 다음주 15.62)



Type / P Purpos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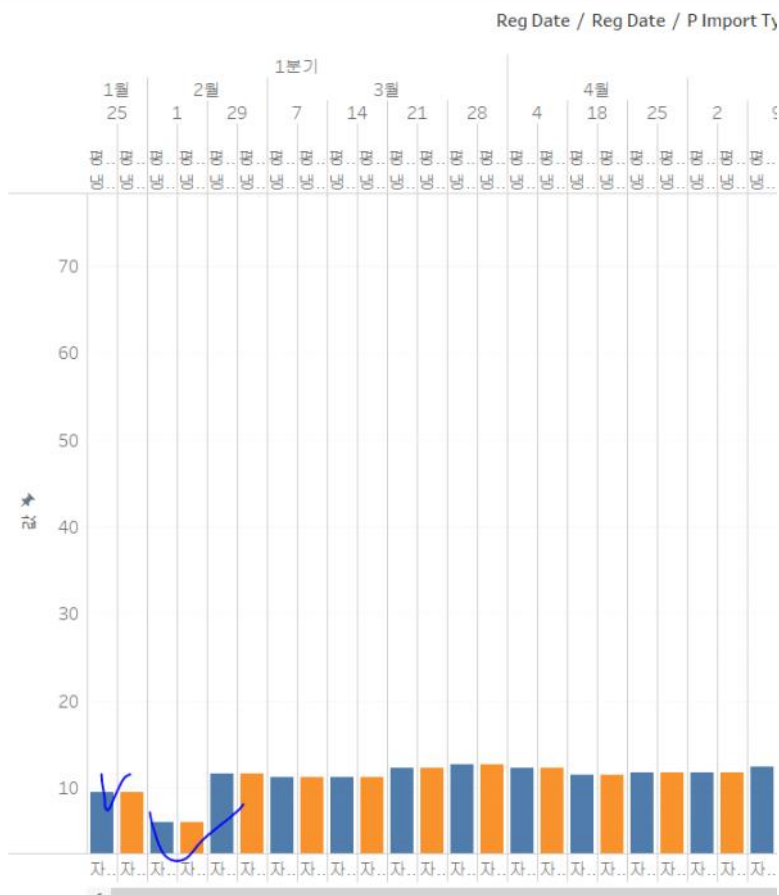
2020/10/26에도

19일 13.65달러,-26일 46.63달러,-11월2일 13.07달러 와 같이 이상치가 보인다.

1-3냉장필렛헛감

11~15달러로 스무스하게 형성, 역시 노르웨이에서만 나오는 품목.

16년 1월 마지막주의 9.4달러,  
 2월 첫째주의 6.05달러  
 (이후-11.5달러~)  
 가 기록 할만한 부분



## 2.판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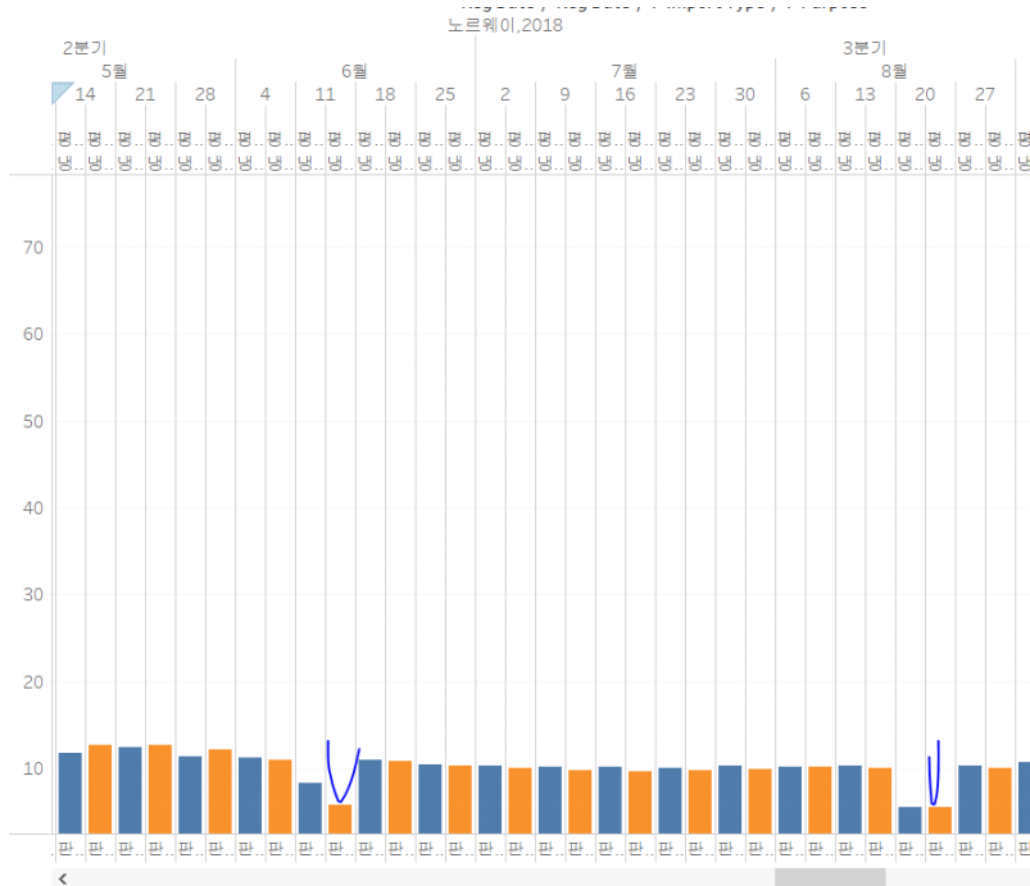
### 2-1냉동

2017-05-29에 단 한번만 판매용으로 수입되었다. 8.9달러이며, 늘 냉동이 그렇듯,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해당 시기는 냉장 필렛이 가장 비쌌던 시기였다.

### 2-2냉장

평균 8~13달러를 스무스하게 왔다갔다 하므로, 7~12달러였던 자사제품제조용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경향성을 찾는게 중요한것 같다.





18년 6월 11일 세계 평균 8.29, 노르웨이 5.73달러.

해당 시기의 자사 제품용 노르웨이산 연어는 10.67달러였으며, 판매용 영국의 냉장연어는 10.85달러였다.

18년 8월 20일 세계 평균, 노르웨이 5.45달러

해당 날짜에 거래된 냉장 연어는 노르웨이산 연어가 5.45로 유일하다.

2-3냉장,포장횃감,필렛(F)

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27~30달러선을 유지중인 고가 상품.

그 이전까지는 17~20달러 선이었다.

즉 16년 7월 이전(평균 17~20달러선)

에서의 이상가격

16년 1월 11일 14.6

16년 5월 2일 27.36

16년 7월 이후(평균 27~30달러선)

에서의 이상가격

16년 12월 19일 19.42달러

17년 1월 30일 21.36달러

17년 2월 6일 19.85달러

17년 4월 17일 24.34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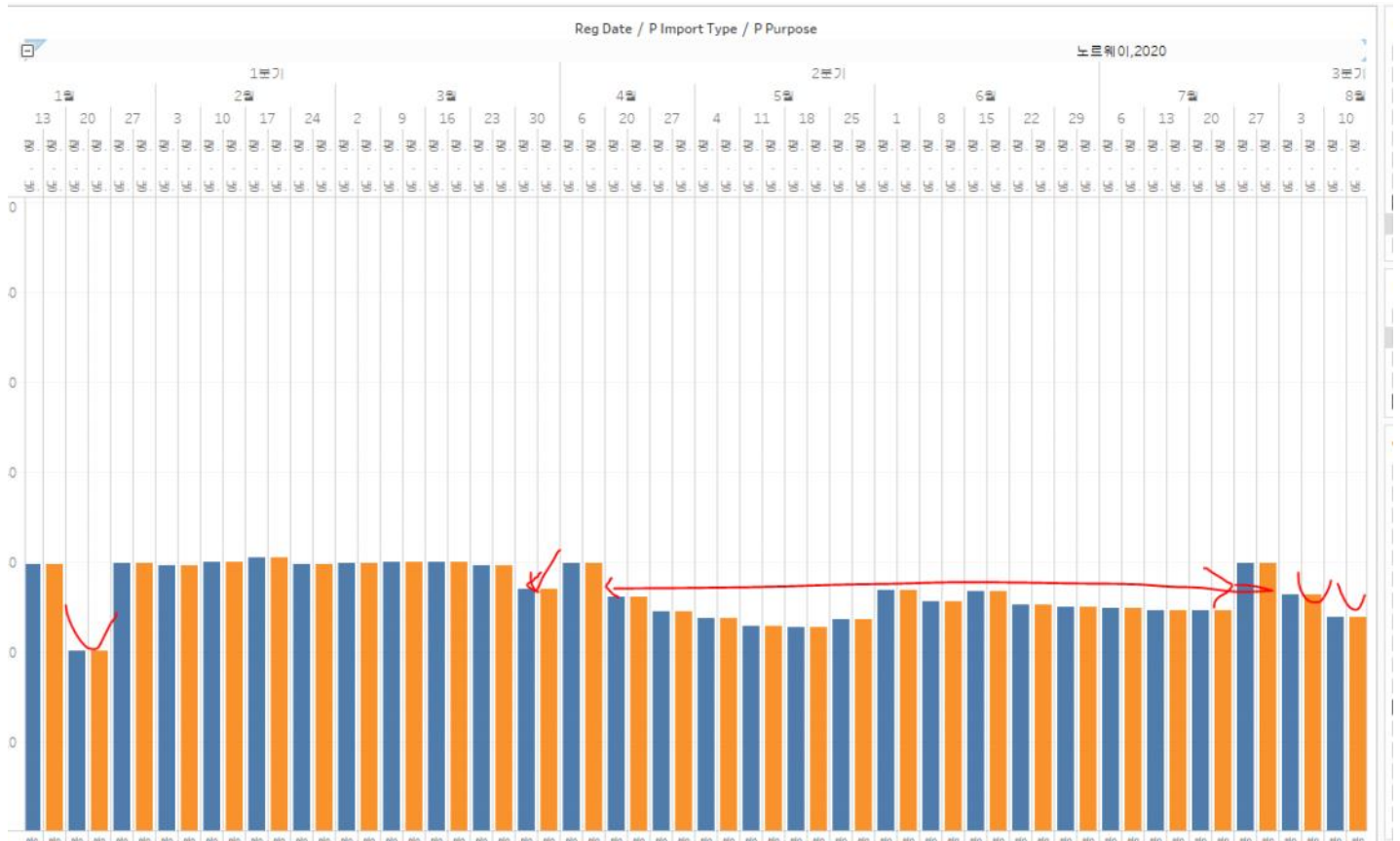
17년 7월 3일 32.81달러

17년 12월 11일 33.6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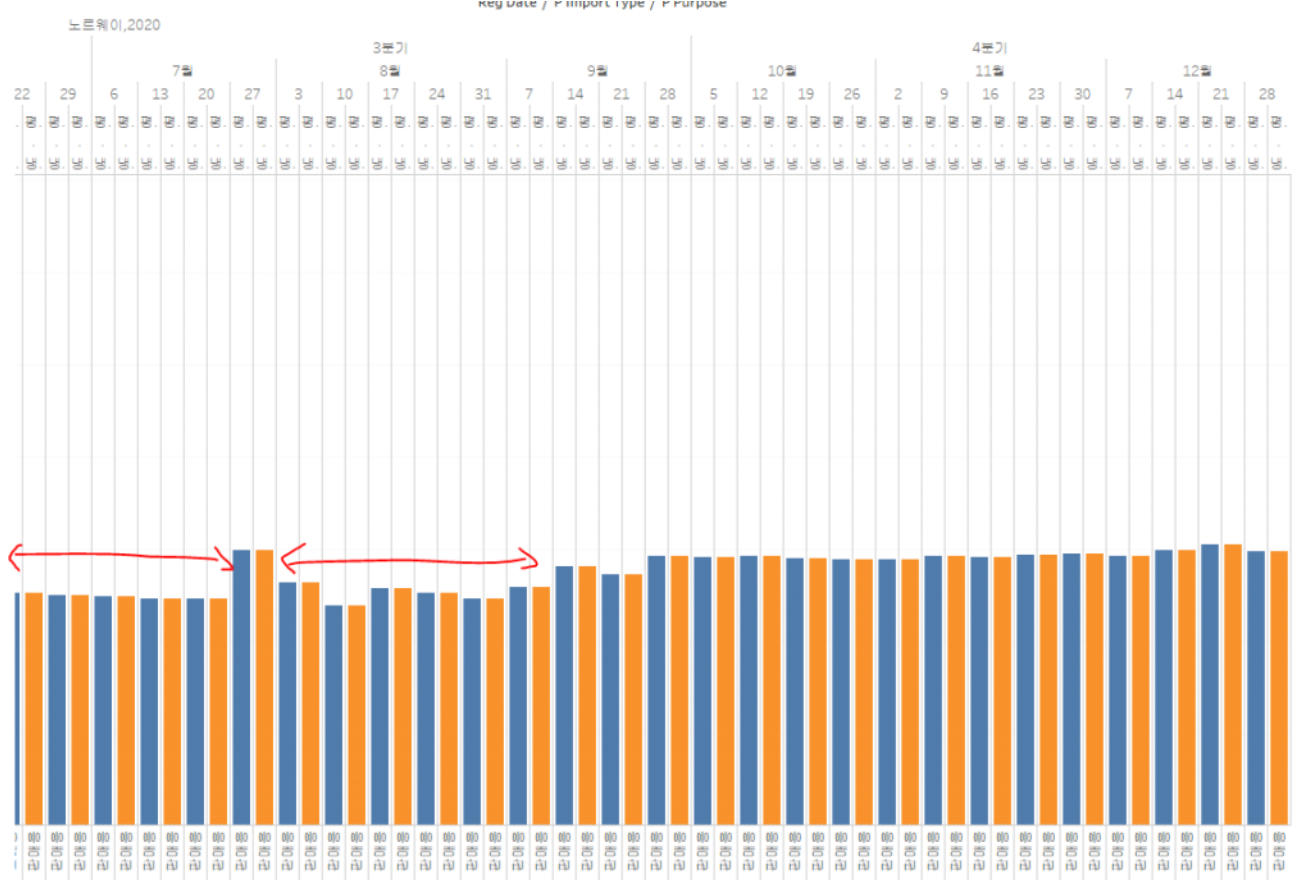
17년 7월 9일 35.88달러

가 있다.

19년도는 경향성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7월의 특정주간이 가격이 특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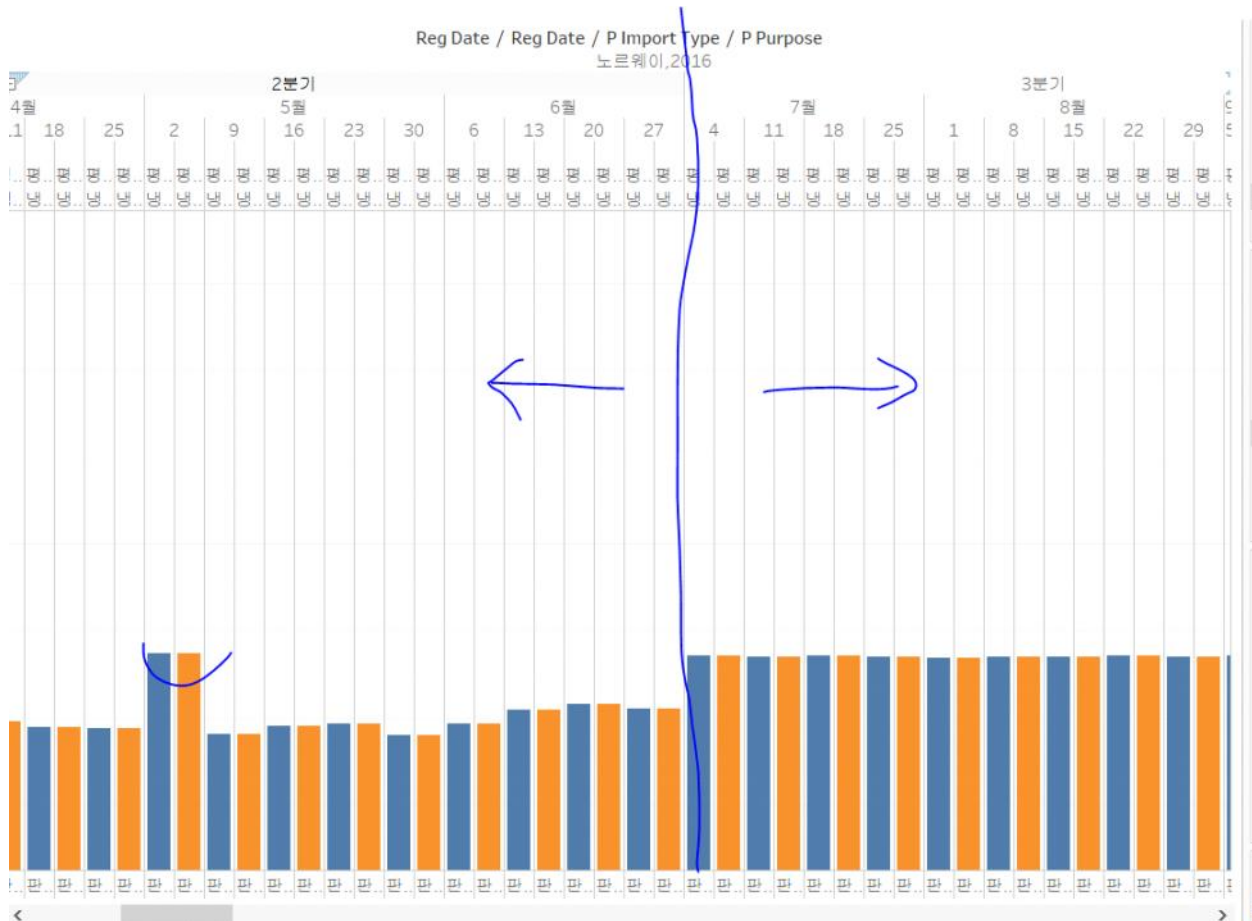


20년도의 경우 1월~3월 내내 27~30달러선을 유지하였으나, 1월 20일에 20달러 라는 이상치를 관측할 수 있었다.  
또한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평균이 23~25달러선으로 낮았으며, 이 추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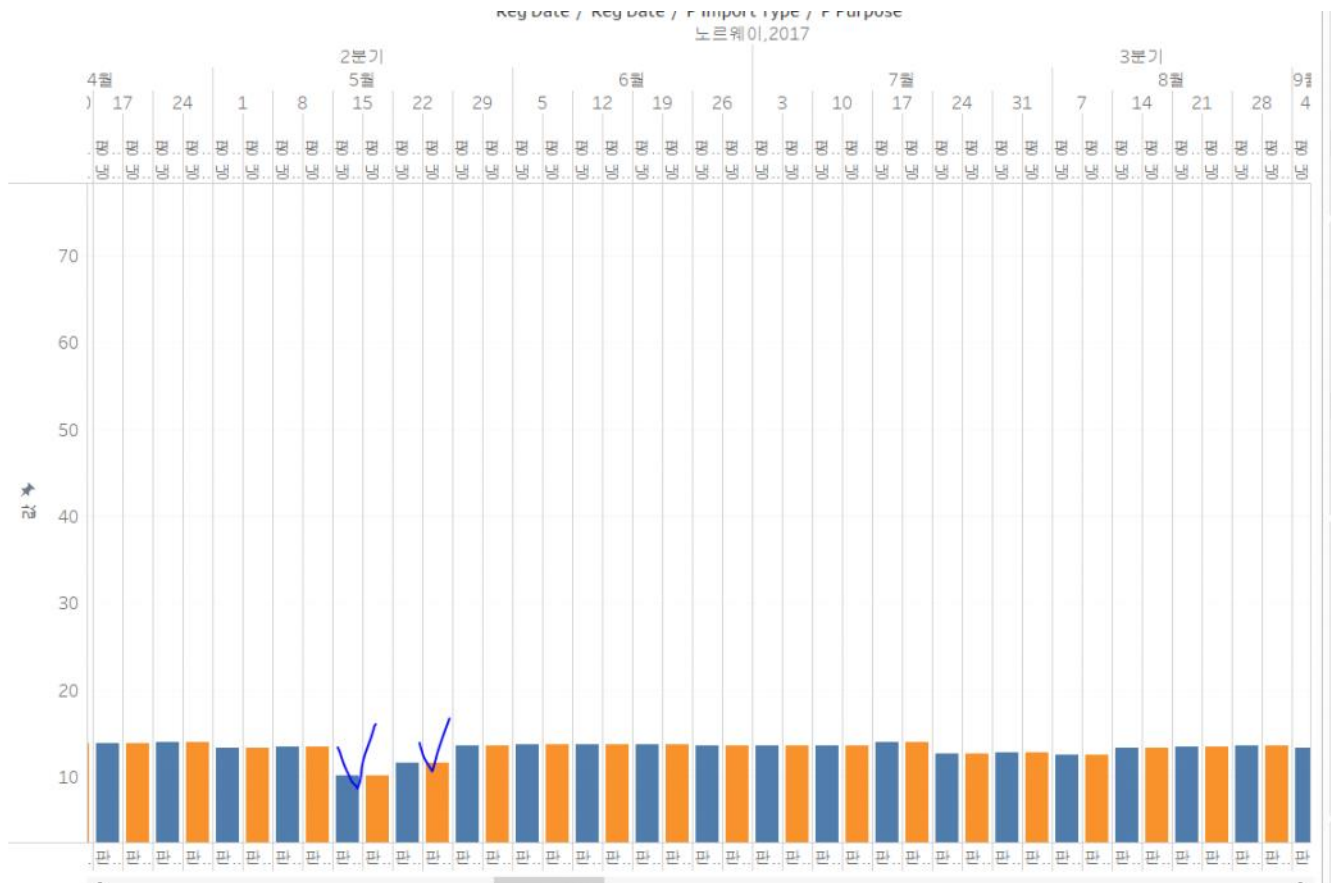
20년 9월 7일까지 유지되게 된다. 하지만 이 후 다시 30달러선을 회복했다.

17년도 4월에 영국에서 1회의 수출이 있었으며, 이때의 가격은 15.02달러. 동일한 날짜의 노르웨이산은 28.25달러였다.  
뉴질랜드산은 거의 25달러 고정이라, 27~30달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2-4냉장,필렛(F)-노르웨이 독점

자사제품제조용에서 해당 날짜의 연어의 평균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렸던 그 냉장,필렛의 판매용.  
17년 5~7월은



놀랍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가격이 평상시보다 더 적었던 때도 존재한다.

평균 12~15달러를 스무스하게 왔다갔다 한다.

사진의 해당 지점은 17년도 5월 15일 10.14달러, 5월 22일 11.53달러이다.

또한 2019년 12월 9일의 20.98달러가 있다.(이전주 13.34, 다음주 15.14)

2-5냉장, 필렛(F), 핏감-노르웨이 독점,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11~17달러로 정현파 형태로 스무스하게 변화한다.

자사제조용이 11~15달러선이었으므로, 판매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자사제조용이 이상치를 보였던 16년 1월 25일(이전주 13.9->(1월25일)9.41->(2월1일)6.06->세주쉬고 11.5)

판매용이 동일한 기간 16년 1월 25일(이전주 13.97->(1월25일)12.79->(2월1일)12.21->13.39...)로 이상치는 관측할 수 없었다.

향후 과제

1. 냉동을 정리 해야한다.